

## 설 명절 가정예배

목상기도	-----	다 같 이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 송	-----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	다 같 이
대표기도	-----	가족대표
성경봉독	----- 시편 71편 1-14절 -----	다 같 이

1.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2.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 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3.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4.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강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5.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6.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7.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 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8.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9.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10.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11.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 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12.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3.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14.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설 교	----- 하나님을 소망하는 한 해 -----	인 도 자
찬 송	-----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	다 같 이
주기도문	-----	다 같 이

##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1절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2절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3절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4절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맘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후렴)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둔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1절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 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2절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중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3절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 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알림** 1. 설교문은 뒷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새 해에도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이 남아있습니다. 오랜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지쳐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많은 것들이 멈춰 있고, 명절에도 온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 모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새 해를 향한 기대와 소망 보다,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요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1편의 화자도 우리와 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힘은 사라져가고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 (14절) 라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인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 1. 피할 곳은 하나님뿐입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서 피할 곳을 찾아 숨는 것은 그곳이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반석이요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하고 있나요? 우리가 피할 안전한 곳은 오직 하나님의 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약한 사람들이 신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지혜와 경험, 실력,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증거 합니다. 문제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더욱 튼튼히 세워져갈 것입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 되기를 소원합니다.

### 2. 하나님만을 소망합니다.

시인은 현재의 고난 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7절) 시인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변함없이 자신과 함께하시고 자신을 돌보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셨던 은혜, 나와 함께하시며 나를 돌보아 주셨던 은혜, 나를 향한 영원한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소망의 근거는 상황과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약함과 강함도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찬양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넘치는 우리 가정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1년

# 실날 가정예배

### 🌸 예배를 준비하면서

- ▶ 가족 중 한 분이 예배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 ▶ 명절 예배는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안에 거하는 계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 ▶ 예배 시 돌아가신 가족을 위해 제사상을 차리고 잘하는 일을 삼가 합니다.
- ▶ 예배를 다 마친 후에는 가족들이 서로에게 격려와 칭찬을 한 마디씩 나눕니다.